

문단 데뷔 26년 만의 문학상 수상

소설가 김정례 인터뷰

문학상보다 더 빛나는 은자(恩子)의 마음

문단에서 소설가 김정례(58) 씨는 '의리 있는 작가'로 통한다. 문단의 대소사를 자신의 일처럼 반듯하게 잘 챙겨 얻은 수석이다. 1977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해 작가생활을 한 지 올해로 만 26년. 자신의 것을 남에게 모두 내놓고 산 그였지만, 그는 문학상에 대한 욕심만은 사실 버리지 못했다고 솔직하게 고백한다.

“매년 선후배와 동료들의 수상소식을 접하면서 나도 언젠가는 상이란 것을 받게 되겠지, 생각했었습니다. 그게 26년이 되었네요. 근래 등단 10년 안팎의 작가들이 상을 휩쓰는 경향을 보며 이제 상이란 것은 나랑 인연이 없구나, 했는데 한국소설문학상 수상통보를 받고 보니 좀 어리둥절했습니다.”

인연의 욕심 저버리고 돌아서는 순간 덩석 달려든 형국이다. 남에게 제 것 다 퍼주는 김정례 씨가 마지막 붙든 욕심 버리고 겸허해지는 순간 달려드는 상을 보면, 상에도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있는가 싶어 유쾌하다. 그는 작년 후반에만 단편 4편을 발표하며 숨은 필력을 유감없이 과시했다. 입에 풀칠하던 돈벌이를 작파하고 팔 건어 부쳐 쓴 소설들인데, 그 가운데 한편이 상과 상금을 안겨주고 보니 소설에 전력하라는 뜻인 듯도 하다는 게 26년 만의 첫 수상소감이기도 하다.

“소설은 어떤 형태든 그 기본은 휴머니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가가 작가 이전에 인간이므로 아름다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며 삽니다. '의리 있다', '일꾼이다', 이런 덕담이 들리는데 천만에요, 선배가 후배를 가리고 예우하며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고 싶은 마음뿐이죠.”

상금을 어디에 쓸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문우들과 술도 마시고,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오래 찾아뵙지 못했던 병석의 원로작가선생님 댁을 방문하는 비용으로도 쓸 것이라 한다. 기자가 지극히 평범한 질문을 던진 까닭은 이것 때문이다. 병석의 선배작가를 찾아뵙겠다는 마지막 대답을 보아 알겠지만, 그는 어쩔 수 없는 '의리 있는 작가' 인 것이다.

김정례 씨의 단편 <손톱>은 “각박하고 암담한 생활현실과 아름다운 손톱을 극명하게 대비시킨 착상, 무기력한 주인공을 통해 인생의 슬픔도 아름다운 그림일 수 있음을 보여준 수작秀作”으로 평가받았다.

대산문학상 김동리문학상 동시 수상

소설가 송기원 인터뷰

겸연쩍은 얼굴, 그러나 완속해진 세계

“김동리문학상 수상통보를 받고 며칠 되지 않아 대산문학상 수상통보를 받았습니다. 두 개를 함께 받아도 되는가 싶어 대산재단 측에 물어보니 거기서도 먼저의 수상소식을 알고 있더군요. 저로서는 겸연쩍은 느낌이었습니다. 두 개의 상을 모두 받을 만큼 제 작품이 뛰어나다는 식의 생각은 전혀 할 수 없었으니까요.”

소설과 송기원(56) 씨가 《사람의 향기》로 2003년 한 해에 대산문학상과 김동리문학상을 잇달아 받아 문단을 놀라게 했다. 한 작가가 한 해 두 개의 상을 받는 일은 극히 드문 일인데다 한 작품을 두고 두 개의 상을 받는 일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일이기 때문. 상복이 터진 송기원 씨는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상을 가로챌 듯한 기분이 없지 않다고 겸연쩍게 웃는다.

송기원 씨는 1990년대 문학의 징표인 '위약'을 유행시킨 장본인이다. 자신을 가두는 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유의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는 위선보다 위약에 높은 값어치를 매긴다. 자학하듯 위약하는 기존 소설의 인물들과 달리, 이번 수상작품 《사람의 향기》에서 보이는 인물들은 한결 너그럽다. 우울한 가족사와 고향 전남 보성 사람들의 신산한 삶에 바쳐진 연작인데, 그는 “가까스로 자의식에서 자유로워진 내가 사물들을 본래의 빛깔로 보려는 몹시 조심스러운 시도”였다고 한다.

“이제까지 견지한 세계지만, 시대나 사회에서 쓸모없이 버려진 가치들 중에서 소중한 힘을 발견하고 싶습니다. 민중으로마저도 치부되지 못하는 천민계급들, 경제적, 도덕적으로 밑바닥으로 떨어져버린 사람들 안에 오히려 가장 소중한 인간의 가치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여유가 생긴다면 몇 년 동안 손을 놓고 있었던 시를 더듬어볼 생각입니다. 거의 십년 넘게 시를 쓰지 못했는데, 시가 몹시 그리워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천안의 13평짜리 영구임대아파트를 집필실로 두고 있다. 빈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아파트지만, 그는 좁은 집필실이 참 편하다고 한다. 앞으로 이곳에서 나오게 될 작품이 시가 먼저일지 소설이 먼저일지 확실하지 못하지만 그는 “다시 한번 시의 여신이 돌아와 준다면 정말이지 무슨 축복처럼 시를 쓸 수 있을 것”이라며 문학상을 두 개나 받아 가쁜 숨을 잠시 고르려는 듯 했다.☞

취재 박용두 기자